


# 춘천지구 전투 (수정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진행된 ‘故 심일 소령 공적 확인위원회’의 분석 결과, ‘춘천지구 전투’에 대한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 수정 내용은 제6사단 전투상보(6사단 작전교육처, 6사단 전사부), 제16포병대대 부대역사일지, 새로 발굴한 「태극무공훈장공적서」, 「美 은성무공훈장추천서」 등의 공식 문서와 북한군 노획문서, 당시 연대장·대대장·중대장 증언 등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6·25전쟁사』 제2권의 ‘춘천지구 전투’ 수정문을 발간·배포합니다.

### 3. 춘천지구 전투

#### 1) 38도선 경계진지 전투

##### (1) 북한군 제2사단의 기습공격

1950년 6월 25일 국군 제6사단의 좌전방을 담당하고 있는 제7연대 경계지역에 는 북한군 제2사단이 연대 정면을 공격해 왔다. 북한군 제2사단은 화천-춘천 축선에 주공을 지향하고, 전투대형을 2개 제대로 편성하였다.

북한군 제2사단의 주공인 제6연대는 이날 중으로 춘천을 점령하고 가평 방면 으로 진출하기 위해 공격 방향을 북한강 연안의 화천-춘천 간 국도로 지향하고 있었다. 국군의 화점과 참호를 포착, 보·포의 협동 작전으로 신속하게 이를 돌파하여 고지를 점령한 후 인접 제12사단 31연대와 협조하여 춘천 지역의 국군을 완전 포위·섬멸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군 제6연대 1대대와 3대대는 마평리-모진교-상송암리 선에서 국군 제7연대의 방어선 돌파를 기도하였다. 이 공격대형에는 대전차포대대 2중대와 공병대대 2중대가 배속되어 있었고, 포병연대 2대대와 3대대의 강력한 포병 화력지원을 받고 있었다.

북한군 제6연대를 지원하는 포병은 사단의 전투명령을 통해 6월 22일 24:00 까지 공격준비를 완료한 상태였으며, 가까운 중심과 방어 일선에 있는 방어병력 및 화기들을 제압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다. 또한 공병은 모진교를 확보하여 보병의 도강을 보장할 것과 거례리-내촌-가일현 간 우마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할 것 등의 임무도 부여받았다.<sup>74)</sup>

북한군 제6연대 정면의 방어를 담당하는 부대는 국군 제6사단 7연대 3대대였다. 인성관 소령이 대대장인 제3대대<sup>75)</sup>는 사단 경계책임지역 중 적목리-마평리-양통고개를 잇는 약 28km에 달하는 넓은 정면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특히 북한군의 주공이 집중된 화천-춘천 간 5번 도로 방면에는 제9중대(중대장 이내홍

대위)가 투입되었다.

한편 국군 제7연대 2대대의 방어정면인 양통고개-부용산 간을 연하는 선에서도 강력한 포병지원을 받는 적이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들은 북한군 제2사단의 조공인 제4연대로서 배치고개-청평리-천전리 방면으로 공격을 지향하여 춘천을 포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제2대대 5중대의 방어지역인 배치고개에 주공을 투입하여 방어지역의 중앙을 돌파, 국군을 양분한다는 기도로 공격을 개시하였다.<sup>76)</sup> 배치고개 일대에 구축된 국군의 박격포 및 대전차포 진지를 압도하기 위해 적 공병대대 1중대가 대전차대대 1중대와 함께 참여하였고, 포병연대 제1대대가 포병지원을 담당하였다.

북한군 제2사단의 제2제대는 주공인 제6연대를 후속하도록 계획된 제17연대였다. 이 외에도 춘천 동북쪽의 추곡리-대곡리 간을 연하는 선에서도 연대규모의 적이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들은 북한군 제12사단 31연대로서 제2사단과의 협조하에 춘천을 포위한 후 춘천-홍천 간 도로를 따라 우회 기동하여 국군 제6사단 2연대의 퇴로를 차단하려는 기도를 갖고 있었으며, 사단 포병연대 예하 1개 포병대대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sup>77)</sup>

이 지역의 방어를 담당하고 있는 국군 부대는 제6사단 7연대 2대대였다. 김종수 소령이 지휘하는 제2대대 예하의 제5, 6, 7중대는 양통고개-배치고개-장재동을 잇는 약 20km의 방어정면을 좌전방으로부터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군 제2사단은 6월 25일 05:00경에 국군 제7연대 방어지역에 대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강력한 포병의 공격준비사격으로 시작된 적의 포격은 인람리 및 지암리 일대에 집중되었다. 약 1시간에 걸친 공격준비사격이 끝나고 북한군 제2사단의 주공연대인 제6연대가 국군 제3대대 9중대의 방어정면인 마평과 상송암을 연하는 선으로 SU-76 자주포(직사포)를 앞세우고 각종 포의 지원을 받으며 공격을 가해 왔다.<sup>78)</sup> 또한 북한군 제2사단의 조공연대인 제4연대는 국군 제7연대 2대대의 방어정면인 천전리(춘천 동북쪽 19km) 및 부용산 좌측계곡, 그리고 발산리의 소로를 따라 공격을 가해왔다.<sup>79)</sup> 북한군 제2사단은 국군 제

<상황도 5-2> 제7연대 경계진지 전투



7연대의 제일선 경계진지를 침공하였고, 이로써 춘천 북쪽의 지암리-인람리-고탄리-청평리-추전리 일대에서 교전이 전개되었다.

## (2) 모진교 및 배치고개 일대의 경계진지 전투

1950년 6월 25일 05:00, 적은 인람리에서 부용산<sup>80)</sup>에 이르기까지 38도선을 연해 구축된 제7연대의 방어진지에 강력한 포병 공격준비사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 포격은 38도선 후방 3km 지점까지 도달하였으며, 특히 고탄리 북쪽 286고지에 설치된 제3세대 9중대의 관측소에도 집중되어 중대장이 전사하고 통신이 두절되었다.

05:30 전사한 중대장을 대신하여 중대 선임장교 김정규 중위가 지휘를 맡은 제3세대 9중대는 적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병력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진지가 돌파되었다. 반면에 각종 포의 지원을 받는 적은 점차적으로 병력이 증원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적이 화천에서 춘천에 이르는 5번 도로를 따라 침입하였고, 그 선두는 이미 제9중대 진지 서남쪽 도로까지 도달하고 있었다. 07:30 마침내 제9중대원 30여 명은 방어선에서 철수를 개시하여 수리봉 일대에서 철수하고 있던 인접 제6중대 1개 소대와 합류, 우두산을 거쳐 소양강 남안의 예정된 방어선인 가래울-양지말 일대를 점령하였다.<sup>81)</sup>

한편 북한군 제2사단의 조공연대인 제4연대는 국군 제7연대 2대대의 방어정면으로 공격해 왔다. 이 지역의 방어임무를 담당한 제2대대의 각 중대와 소대는 거점에 고립된 상황에서 힘들게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었다. 06:00경 제2세대 5중대와 7중대는 약 2개 대대의 적을 맞아 교전을 전개하였으나, 결국 진지가 돌파되어 제7중대는 내평리를 경유하여 소양강 남안의 지내리로,<sup>82)</sup> 그리고 제5중대는 마적산 기슭과 천전리를 경유하여 우두산으로 각각 철수하였다.

경계진지에 배치된 각 중대와의 통신이 두절되는 등 전선의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제2대대장 김종수 소령은 대대 작전장교를 대동하고 제5중대의 방어지역인 부용산으로 직행하였다. 그곳에서 치열한 교전상황을 확인한 대대장은

대대 좌일선 중대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발산리로 향하였다.

08:00경 천전리에 도달한 대대장은 제6중대장이 급파한 연락병으로부터 적정 상황을 보고받았다. 제6중대는 적의 대대적인 침공을 받고 축차적으로 철수 중에 있었다. 대대장은 최대한 적을 저지·격멸할 것을 연락병에게 지시하고 우두산으로 복귀하였다.

제7연대 2대대장의 지휘력이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전개된 각 중대의 철수는 무질서하였다. 대대의 철수병력은 11:00경 연대관측소가 설치되어 있던 우두산에 집결하였으며, 이날 오후에는 대대장의 지휘 아래 소양강을 도하하여 가마골에서 양재일에 이르는 주진지를 점령하고 하천선 방어에 임하였다.

이날 저녁에 대대의 방어진지 정면인 천전리에는 북한군 제4연대 병력이 집결하여 소양강 도하를 준비하였다.<sup>83)</sup> 대대장은 북안(北岸)의 적을 역습하기로 결심하고, 이 지역에서 도하작전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제5중대장 김상홍 대위에게 소양강을 도하하여 적을 공격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김상홍 대위는 30명의 병사를 선발하여 실전교육을 마친 후 이날 야간에 적진으로 침투하였다. 이들은 무방비상태에서 도하를 준비하던 적에게 수류탄과 소총 등으로 역습을 가하고 전원 무사히 귀대하였다.

### (3) 아군의 주요 조치

38선상의 경계진지로부터 강력한 북한군의 포격이 개시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제7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그들의 징후 및 행동으로 보아 공세가 시작되었음을 간파하였으나 그 침공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포격이 인람리에 집중되자 적의 주력이 5번 도로로 지향할 것으로 판단하고 05:05를 기해 비상을 발령하여 영외거주 장병과 외박중인 병력을 소집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 ① 연대는 현 진지에서 적의 공격을 저지·격퇴하려 한다.
- ② 제2대대는 현 진지를 고수하여 적을 진전에서 격퇴하라.

- ③ 제3대대는 현 진지를 고수하고 명에 의하여 인람리의 적 측방을 강타할 준비를 갖추라.
- ④ 제1대대는 현 집결지로부터 출동하여 △164를 점령하고 전투태세를 갖추라.
- ⑤ 제16포병대대는 제2대대와 제3대대를 직접 지원하고 명에 의하여 제1대대를 화력 지원하라.

이에 앞서 연대장은 사단장에게 적정을 보고하였으며, 각 대대에 작명을 하달한 직후 각 대대와의 유무선이 두절되어 상황과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단장 김종오(金鐘五) 대령은 원주에 위치한 사단사령부에서 제7연대장으로부터 북한군의 전면공격이 개시되었다는 급보를 받았다. 그리고 그 직후 육군본부 참모부장 김백일(金白一) 대령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강원도지구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됨과 동시에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징발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사단장은 즉시 제19연대의 출동명령과 물자징발에 관한 지시를 하달한 후 작전참모 양중호 중령을 대동하고 춘천으로 직행하여 봉의산 관측소에서 작전을 지휘하였다.

한편 제7연대는 산악지대의 중요지역과 북한군의 예상 접근로에만 소대규모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의 병력으로 공격을 가해오는 적을 격퇴할 수 없었다. 결국 아군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병력의 열세로 진지가 돌파되었고, 적은 더욱 강력하게 압력을 가해왔다.

제7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그동안의 전투경과를 분석한 결과, 적이 전면남침을 개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그들의 주공 방향이 5번 도로로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장기전에 대비한 본격적인 전투준비 조치를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 ① 작전지역 내의 민간차량과 연료를 징발하여 연대의 기동력을 확보한다.
- ② 개전 직전에 육군본부 지시에 의거 예하 부대에서 회수하여 연대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각종 화기를 각 중대에 재지급한다.
- ③ 군량미를 확보한다.
- ④ 삼천리 탄약고에 보관중인 탄약을 안전지대로 이전시킨다.



- ⑤ 연대 신예비대를 확보하기 위해 연대 본부중대 및 근무중대 병력으로 전투부대를 잠정 편성한다.

이와 같이 지시한 연대장은 09:00 우두산으로 연대 전술지휘소를 이동하는 한편 연대본부 소속의 장교를 연락장교로 활용하면서 진두지휘 태세를 갖추었다.<sup>84)</sup>

## 2) 주저항선 전투

### (1) 주저항선 진지 점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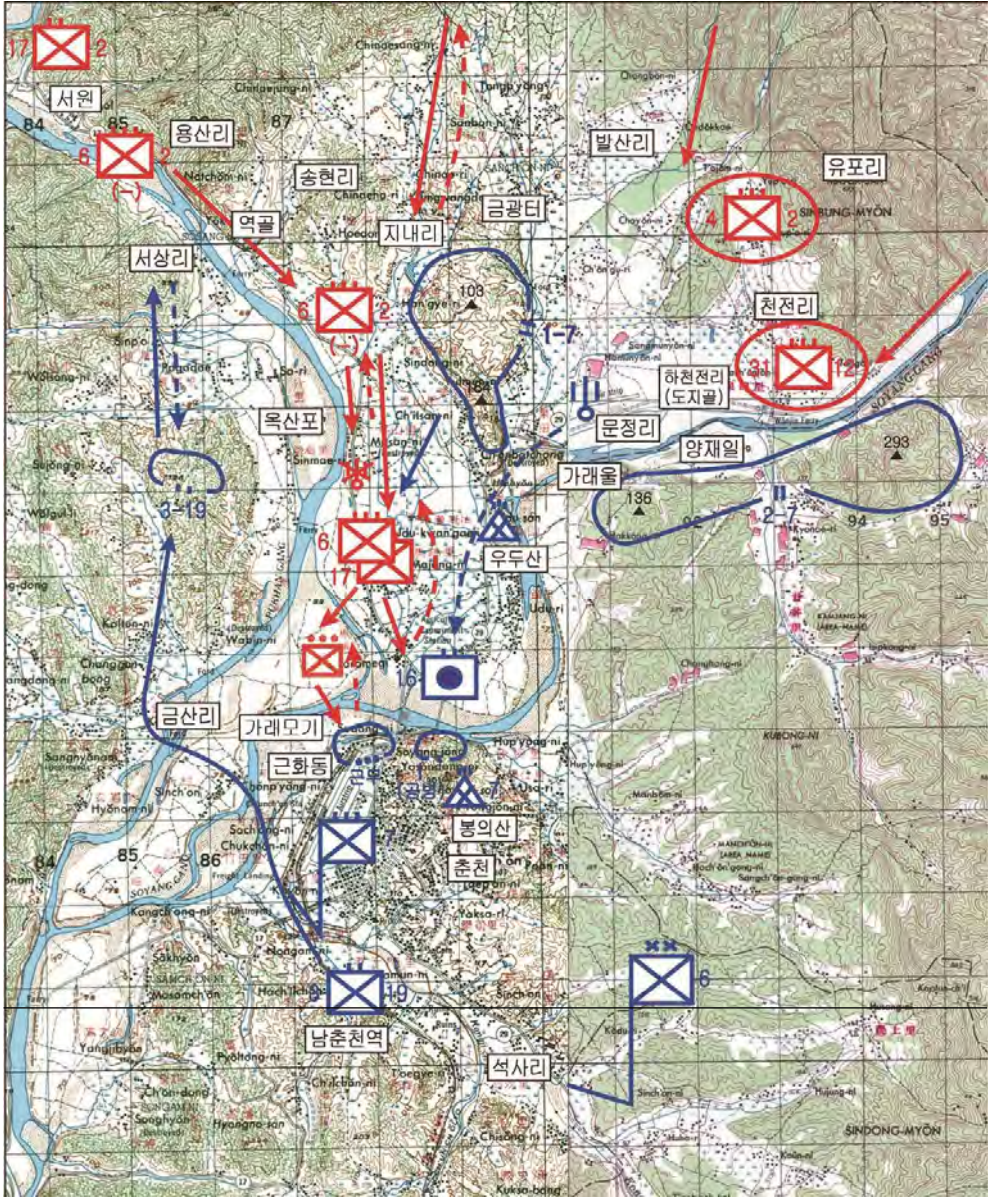
제7연대의 예비로 춘천역 부근에 주둔하고 있던 제1대대는 6월 25일 05:05를 기해 비상을 발령하였다. 이미 대대 연병장에는 영외거주 간부들이 집결하고 있었다. 전방의 상황이 평소와 다르다고 판단한 제1대대장 김용배 소령은 연대의 비상발령에 앞서 자체 소집망을 통해 영외거주 간부들을 소집해놓고 있었다. 따라서 연대장으로부터 출동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대부분의 장교 및 하사관들이 집결한 상태였다.<sup>85)</sup>

그러나 많은 병사들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 외박을 나간 상태였다. 연대의 가두방송을 통해 전쟁발발 상황을 알게 된 병사들 중 일부는 출동시간에 맞추어 귀대하였고, 나머지는 소양강 북안의 계획된 방어진지로 직접 달려갔다.

출동에 앞서 대대장은 북한군의 침공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즉시 소양강을 건너 128고지로부터 164고지에 이르는 선 일대에 진지를 점령하도록 지시하였다. 특히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인람리 및 부창리 방면의 길목을 중점 방어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1대대는 08:20 예정된 방어진지로의 투입을 완료하고 전투태세에 돌입하였다.<sup>86)</sup>

한편 사단의 예비대로 사단사령부와 함께 원주에 위치하고 있던 제19연대는 6월 25일 07:00를 기해 비상경계에 돌입하였다.<sup>87)</sup> 그러나 비상경계에 돌입하면서도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장병들은 거의 없었고, 30분이 경과한 후에야 최전선에서 쌍방 간의 격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상황도 5-3> 제7연대 주저항선 전투(1950. 6. 25)



그때 제19연대는 연대장 민병권 중령이 참모학교의 교육과정에 입교하고 있었으므로 부연대장 박광혁 중령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병력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외출과 외박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3대대는 이날 대대장 김한덕(金韓德) 소령의 명령을 받고 영내에서 대기 중에 있었다. 선발대로서 출동명령을 받은 제3대대는 연병장에 집결하여 연대 군수주임 안용학(安用鶴) 소령으로부터 개인별 1기수의 탄약과 함께 충분한 양의 보급품을 지급받았다. 이어 군장검사를 마친 대대는 연대수색대와 함께 연대에서 보낸 차량에 탑승하였다. 영월광업소에서 징발한 5대의 차량을 포함하여 20대의 차량에 나누어 탄 이들은 13:00에 원주를 출발하였다.<sup>88)</sup>

외출중인 병사들이 복귀하기 시작한 제1대대와 제2대대는 차량의 부족으로 기차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연대장직을 대행하고 있던 박광혁 중령은 20:00에 양 대대를 지휘하여 원주역을 출발하였으며, 청량리를 경유하여 춘천으로 향하였다.<sup>89)</sup>

한편 연대 작전주임 박주근(朴柱根) 소령은 제3대대와 함께 춘천으로 직행하였다. 그의 임무는 부재중인 연대장을 대신하여 작전 및 행정지원 사항을 사단 및 제7연대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데 있었다. 춘천에 도착한 그는 즉시 제7연대 관측소가 위치한 봉의산에 연대관측소를 임시로 개설하고 연대가 춘천으로부터 철수할 때까지 제7연대와 합동으로 운영하였다.

제19연대 3대대는 20:00에 춘천에 도착한 후 23:00에 북한강 서안의 금산리 북쪽 1.5km 지점 일대에 병력을 배치하고 화천 방향으로부터 남하하는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였다.<sup>90)</sup> 제3대대가 춘천에 도착할 무렵 북한군은 시내 도처에 포격을 집중하고 있었다. 전황이 긴박하다고 판단한 대대장은 춘천 남쪽지역에서 병력을 하차시킨 후 급속행군으로 이동하였다. 춘천역을 돌아 북한강을 건너 대대는 금산리 북쪽의 횡격을 이룬 217고지 일대에 포진하였다.

## (2) 옥산포 및 가래모기 전투

국군 제7연대의 경계진지를 돌파한 북한군 제6연대(-)는 SU-76 자주포(직사

포)91)를 앞세우고 5번 도로를 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이에 따라 57mm 대전차포 중대장 송광보(宋廣保) 대위는 제2소대를 속칭 모테이벼루 도선장(용산리 남쪽 1.5km)으로 급파하였다. 이 지점은 절벽과 S자형 굴곡으로 이루어져 은폐와 기습에 유리한 지형이었다. 09:00경 포 방렬을 마친 대전차포중대 제2소대장 심일(沈鎰) 중위는 즉시 2발의 포탄을 발사하여 적 자주포에 모두 명중시켰으나, 자주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계속 밀고 내려옴에 따라 대전차포를 거두어 작전계획상 제2진지인 옥산포에 재배치하였다.

제7연대를 지원하는 제16포병대대는 08:30경 A포대(1포대) 105mm 포 2문을 옥산포까지 추진시켜 사북지서 부근을 목표로 포사격을 감행하였다. 하지만 A포대는 적의 박격포탄이 포대에 떨어져 10:00경 진지를 변환하여 춘천역 우측의 포진지를 점령하였다. B포대(2포대)는 09:30경 춘천시 우두동으로 출동하여 신북지서 부근까지 전진하여 포사격을 하였고, C포대(3포대)는 12:15경에 근화동 지역에 출동하여 포 4문을 진지에 배치하고 대기하였다. 그러나 C포대는 홍천지역 전투에서 고전중인 제2연대를 지원하기 위해 17:30에 홍천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12:00경 용산리(한계울 부근)를 통과한 적의 주력이 넓은 보리밭에 나타나자 제7연대 1대대장은 사격개시 명령을 내렸고, 보·포 협동으로 일제사격을 가한 후 역습을 실시하였다. 불시에 협격을 받은 적의 진영은 대혼란을 일으켰고, 급기야 많은 시체를 남겨놓고 도주함으로써 제1대대는 지내리 선까지 회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두산 관측소에서 전투 추이를 지켜보던 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13:00에 제1대대를 주진지로 복귀시켜 방어태세를 갖추도록 조치하였다. 이는 대대가 포병 지원거리 밖으로 벗어날 우려가 있고, 또한 적으로부터 대대의 측방이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 무렵에 적은 일부가 춘천 북쪽 4km 지점의 신북리-발산리까지 진출하고 있었다.92)

많은 병력손실을 입고 북쪽으로 퇴각한 적은 이날 14:00경 SU-76자주포(직사포) 10대를 앞세우고 다시 옥산포로 공격해 들어왔다. 적 자주포의 위세에 놀란 병사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순간 모테이벼루 도선장에서 옥산포로 철수하여 포를



우두평야에서 본 제7연대 주저항선(△128 - △164 - △123(우두산)). 당시 164고지에는 제1대대지휘소가 123고지(우두산)에는 연대전술지휘소가 설치되었다.

방렬하고 있던 57mm 대전차포중대 제2소대는 적 자주포가 대전차포 사거리 내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제2소대장 심일 중위는 적 자주포에 대한 대전차 육박공격을 결정하였다. 중대장의 만류를 뿌리친 제2소대장은 도로변 민가에 의탁 대기하고 있던 중 자주포가 가까이 다가오자, 57mm 대전차포로 SU-76 자주포(직사포)의 궤도를 타격하여 정지시켰다. 그런 다음 특공조가 준비한 휘발유병과 수류탄으로 적 자주포 3대를 파괴하였다.<sup>93)</sup> 이어 자주포에서 뛰어내려 도주하려던 승무원을 생포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뒤따르고 있던 적 자주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자 서원 방면으로 퇴각하였다.<sup>94)</sup>

164고지와 우두산 등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연대장 이하 장병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울리고 기뻐하였다. 대전차포중대 제2소대의 쾌거는 모든 장병에게 적 전차(자주포)를 파괴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사기를 양양하는 계기가 되었다.<sup>95)</sup>

앞서 감행된 2차례의 공격에 모두 실패한 북한군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제1대대의 전술지휘소가 위치한 164고지와 우두산 일대에 강력한 포격을 단행하면서, 약 1개 대대의 병력을 동원하여 제1대대 진지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제1대대는 진전에서 이를 격퇴하고 전과를 확대하였다.



심일의 대전차포소대가 달성한 옥산포 전투의 성과로 제7연대는 소양강 남안 진지로 철수해 방어 준비를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얻었다. 제16포병대대 군수장교 김운한 소위는 최갑석 상사와 정기백 상사를 대동하고 징발한 민간차량을 이용하여 소양강 북안의 제사(방직)공장 앞에 위치한 대대 탄약보급소의 포탄을 옮길 수 있었다. 이렇게 포병대대에 포탄 지원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보병에 대한 화력지원을 충분히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춘천사범학교 학도호국단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이 탄약 운반에 자원하여 참여하였고, 5천발의 포탄을 비롯한 기관총과 소총류 등의 각종 실탄을 운반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사공장 여공들은 주먹밥을 지어 군인들에게 직접 분배하면서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sup>96)</sup>

이에 앞서 소양강 북안을 점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적의 의도를 간파한 연대장은 16:00에 우두산에 설치되어 있던 연대관측소를 보수공사가 완료된 봉의산 진지로 이동시켰다.<sup>97)</sup> 아울러 포병대대도 소양강 남안으로 진지를 전환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포병대대는 17:00에 제1포대를 춘천역 앞에, 제2포대를 봉의산 뒤편에, 그리고 제3포대를 우시장으로 전환하였다.<sup>98)</sup>

한편 북한군 제2사단은 주공인 제6연대가 소양강 도하에 실패하자 18:00에 서상리-한계리 선에서부터 제2제대인 제17연대를 전투에 투입하여 도하를 시도

하였다.<sup>99)</sup> 또한 북한군은 가래모기의 보리밭을 따라 공격을 가해왔다. 화천-춘천 간 5번 도로를 통해 공격했던 적은 그곳에서 많은 인명손실을 입었던 까닭에 이번에는 공격로를 변경하여 전진해 왔다.

쌍방 간의 교전은 순식간에 전개되었으며, 몸 하나 숨길 곳 없는 개활지로 몰려든 적은 증강된 아군 대대의 모든 중화기와 개인화기의 목표물이 되었다. 동시에 아군 포병도 육안으로 표적을 식별하여 포격을 실시했으며, 사거리가 짧았던 포병은 보병대대와 전진 및 후퇴의 보조를 맞추면서 보병부대와 동렬(同列)에서 보·포 협동공격을 가함으로써 적을 거의 궤멸상태로 몰고 갔다.



춘천 북방에 전복되어 있는 적 SU-76 자주포(직사포), 1951년 4월 미 제1해병사단 촬영

이어 제1대대장은 도주하는 적을 추격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도주하던 적의 일부는 북한강의 깊은 물에 빠져 죽고, 북으로 도망친 자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벌판에는 적의 시체가 가득하였다. 이처럼 적은 단숨에 춘천을 점령하기 위해 전술원칙을 전혀 무시한 채 개활지를 밀집대형으로 밀고 내려오는가 하면 지형지물을 이용하지 않고 대오를 맞추어 앞으로 치닫기만 하였다.<sup>100)</sup>

한편 25일 05:30에 연대 정보주임 김동명 대위로부터 화천 및 양구 방면에서

적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제16포병대대장 김성 소령은 즉시 대대에 출동준비를 갖추도록 우선으로 명령을 하달하였다.<sup>101)</sup> 그리고 곧장 본부로 직행하여 연병장에 집결해 있는 병력을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전체 인원의 약 30%의 병력이 집결하였음을 감안한 대대장은 우선 현 병력으로 사격할 수 있는 4문의 포를 임시로 편성하여 2문은 천전지서 앞에, 그리고 2문은 사농동에 추진 방렬하도록 하였다.

이러는 동안 포병학교에 교육을 위해 파견되었던 3명의 포대장이 13:00경에 귀대하였고, 또한 외출 및 외박 중인 병사들이 귀대함으로써 대대는 전체가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포탄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보병에 대한 화력지원이 충분하게 실시되었다.<sup>102)</sup>

우두산 부근에서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던 무렵 제19연대 3대대가 방어를 담당하고 있던 북한강 서안(西岸)의 금산리 일대에는 정적만이 유지되고 있었다. 26일 05:00경에 옥산포 북쪽 3km 지점의 저울골 부근에 강력한 적의 포격이 집중되었고, 그 중 일부가 대대를 지향하기 시작하였다.

약 20분간의 포격이 끝나고 1개 중대규모의 적이 모진교 남쪽 3.5km 지점의 막은골로 공격을 개시하였다는 상황을 보고받은 대대장은 전투태세를 갖추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적은 1시간이 지나도록 대대의 유효사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고 좌우로만 기동하였다.

이는 제3대대가 북한강 동안(東岸)의 전투에 가세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대대를 고착 견제하는 행동이었다. 대대장은 적의 기도를 간파하고 예비중대를 투입하여 서상리까지 이들을 추격토록 하였으나, 적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후퇴함으로써 측방의 적정을 고려하여 중대를 복귀시켰다.

### 3) 최후저항선 전투

#### (1) 최후저항선 진지 점령과 소양교 전투

사단장 김종오 대령은 봉의산에서 전황을 지켜보면서 적의 공격력이 예상외로



강력한 점, 우두산 동쪽 천전리 부근 적의 움직임이 활발한 점, 그리고 양구로부터 증원 병력이 도달하여 총공격을 실시할 것이라는 포로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적의 재공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분산되어 있는 사단 주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장은 천연 장애물인 소양강을 방어선으로 하는 최후저항선을 점령하도록 하였다.

전날 실시한 제7연대 1대대의 역습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북한군은 다음날 (6.26) 새벽에 공격을 재개하였다. 제1대대는 옥산포 우측의 능선 진지를 확보 중에 있었으나 03:00 우두산 진지에 적의 공격이 시작되면서 교전이 전개되었다. 05:00에 제1대대는 적의 남하를 저지하며 소양강을 도하하여 차안의 계획된 진지를 점령하였다. 이때부터 적은 아군의 방어지역 확보를 목표로 하여 치열하게 포격을 가하였다.<sup>103)</sup>

소양강 방어선 일대를 돌파하기 위해 북한군 제2사단은 다수의 화포와 8대의 SU-76 자주포(직사포)를 직접조준사격 위치에 배치하고 05:40부터 20분간 포병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공격을 감행하였다.<sup>104)</sup> 그들은 봉의산 일대의 소양교 정면에 주공을, 그리고 제19연대가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근화동 일대에 조공을 투입하여 공격을 가해왔다.<sup>105)</sup>

적의 총공세가 개시되었다고 판단한 제7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봉의산과 소양강 등 자연장애물을 최대한 이용하여 그들의 공세를 격퇴하기로 결심하고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소양강 도하를 저지하고 있었다. 제7연대 대전차포중대 2소대(심일 중위)는 전날 옥산포 전투에서 진흙에 빠진 대전차포 1문을 유기한 채 철수하여 제1소대 대전차포와 함께 소양교 남안에 배치된 상태였다.

26일 10:00부터 북한군의 총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SU-76 자주포(직사포)를 소양강 북안에 두고 봉의산 연대관측소는 물론이고 산 중턱과 소양강 제방에 구축해 놓은 화기진지에 직격탄을 퍼부어 파괴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북한군 SU-76 자주포(직사포) 3대가 소양교를 통해 남안의 아군 대전차포 진지를 향해 공격해 오자 대전차포 소대원들이 두려운 마음에서 진지를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목격한 소대장 심일 중위는 진지로 뛰어 들어 직접 대전차포 사수가 되어 적 SU-76 자주포(직사포)가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격을 개시하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지만 3대의 적 SU-76 자주포(직사포)가 파괴될 때까지 사수로서 끝까지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 때 인접 소대장과 소대원 2명이 진지로 복귀하여 전투를 지원하였다.<sup>106)</sup> 이로써 심일 중위의 대전차포 소대는 소양교 남안의 방어진지가 붕괴되어 적이 춘천시내에 진입할 수 있는 위기를 막아낼 수 있었고 제7연대는 방어선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전날(25일) 춘천을 출발하여 홍천으로 이동한 제16포병대대 3포대는 26일 새벽 01:00경 도착하여 진지를 구축하고 포를 설치하였다. 제2포대는 03:00경 춘천역 우측 부근에 적의 포탄이 떨어지자 소양로 동사무소 방면으로 진지를 이동하였고 05:10에 사격을 개시하였다. 제1포대도 05:30에 소양강을 도하하려는 적에 대해 포문을 열어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15:00부터 제1포대는 다시 옥산포 지역에 맹포격을 가하였고, 17:30경 적의 집중포격으로 부득이 후퇴하였다. 제2포대는 10:00부터 사격을 재개하였으나 적 포탄이 진지에 떨어짐으로써 20:00에 춘천사범학교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23:00에 다시 효자동 우시장으로 진지를 옮겼다. 하루 종일 제1포대와 제2포대는 보병의 이동과 소양강 남안으로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해 포병 집중사격을 가하면서 적의 공격을 차단하였다.

차량이 부족하여 제19연대 3대대와 함께 이동할 수 없었던 제1대대와 제2대대는 6월 25일 20:00를 기해 원주역을 출발, 청량리를 경유하여 6월 26일 05:00에 춘천에 도착하였다.<sup>107)</sup> 제19연대 1대대는 북한강 강줄기를 따라 춘천 시내로 침투하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 소양강과 북한강 합류지점인 근화동 제방에서 방어태세에 돌입하였다.<sup>108)</sup> 대대는 머지않아 펼쳐질 공방전에 대비하여 이곳으로부터 소양교에 이르기까지 제방 앞뒤로 개인호와 교통호를 구축하였다.

제19연대 1대대는 10:00에 소양강변에 부대를 배치하고 있던 중 적 2개 대대의 공격을 받아 격렬하게 교전을 전개하였다. 12:00부터 포병의 지원 아래 적이 다시 공격을 가해오자, 제1대대는 적을 격퇴하고 진지를 확보하며 제2대대를 지원하였다. 제2대대는 11:00에 정면의 적을 공격하여 소양강을 도하하였으나 11:50에

원위치로 돌아왔다. 12:30에 다시 한 번 공격하여 진지를 점령하였으나 20분도 지탱하지 못하고 원위치로 돌아온 후 대대는 종일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적의 남하를 저지하였다.<sup>109)</sup>

제7연대 2대대는 38도선의 경계진지로부터 철수하여 소양강 남안의 가마골-양재일 일대에 전개하여 적과의 접촉이 거의 없는 상태로 대오를 정비하고 적의 도하에 대비하고 있었다. 19:00경 제2대대는 춘천의 동쪽 방어를 위해 봉의산 동남쪽 1.5km 지점에 위치한 후평리로 이동하라는 연대장의 명령을 받고, 강행군으로 이동하여 21:00에 부대전개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제7연대장은 적이 소양강을 도하하기 위해 주력부대를 소양교로 지향할 것으로 판단하고 제8중대를 집중 운용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제8중대는 81mm 박격포 6문을 비롯하여 Cal. 50 기관총 2정과 HMG 4정, LMG 2정 등 전 화력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중대였다. 따라서 제8중대는 소양교 남안의 범바위 주변에 집중 배치되었고, 제3대대 12중대가 대대에 추가로 배속되었다.

한편 공격개시 당일 춘천 동북쪽의 추곡리와 대곡리 선에서 춘천 방면으로 공격을 개시한 북한군 제12사단 31연대는 춘천 동북쪽 6km 지점의 하천전리 지역까지 진출한 후 진격을 멈추고 사단장의 지시를 기다렸다. 그러나 북한군 제12사단은 예하 부대에 대한 지휘체계가 불완전한 상태였고, 제2사단과의 협조체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제31연대는 6월 26일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sup>110)</sup> 따라서 합동공격으로 춘천을 점령하려던 그들의 기도는 실패하였고, 국군 제7연대가 별다른 손실 없이 북한군 제2사단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게 되었다.<sup>111)</sup>

## (2) 춘천 시가전과 춘천 철수

6월 27일 05:00 북한군은 총공격 준비로 봉의산에 집중포격을 가하였다. 그리고 06:00에 북한군 제2사단은 주공을 봉의산 국군 제7연대 지역으로, 조공을 제19연대 정면으로 지향하여 공격하였다. 그러나 제6사단 7연대는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도하하려는 적을 격퇴시켰다. 북한군은 막대한 인명손실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계속해

왔다. 연대수색대는 인해전술로 끊임없이 도하를 시도하는 적을 저지하였으나, 결국 중과부적으로 10:00에 소양강 일대의 최후저항선 진지가 돌파되었다.<sup>112)</sup>

11:00를 기해 그들은 총공격을 재개하여 1개 연대규모의 병력이 가래모기로 도하하고 또 다른 병력은 직접 소양교로 밀어 닳쳤다. 제1대대는 제2포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포와 대대에 배속된 제8 및 제12중대의 화력을 집중하여 적의 도하를 저지하였으나, 그들은 소양강 남안에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인해전술로써 도하를 시도하였다.

이러는 동안 연대관측소에 당도한 사단장 김종오 대령은 연대장으로부터 전황을 보고받은 직후 육군본부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과 통화하였다. 김백일 대령은 이 통화에서 전 전선의 상황을 설명한 후 전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선을 따라 지연전을 실시할 것을 통보하였다.

사단장은 연대장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하고 적과 접촉하고 있는 현재의 전선을 이탈하여 원창고개에 제2방어선을 구축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홍천으로 이동하였다. 그는 홍천 고수만이 제7연대의 안전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북한군은 약 1시간 30분에 걸친 공격을 실시했으나 수많은 사상자만 발생하고 의도했던 돌파가 실패로 돌아가자 화력지원에 주력하던 SU-76 자주포(직사포)를 소양교로 밀어붙이는 한편, 2개 연대 규모의 병력을 가래모기로 도하하도록 하였다. 또한 1개 연대가 춘천 동북쪽의 원진나루터를 건너 구봉산으로 남진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공격개시 당일 소양강 북안까지 진출하였음에도 자기사단과의 통신두절로 더 이상의 진격을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했던 북한군 제12사단 31연대로서 이날 인접 제2사단과의 통신을 재개한 후 진격을 시작하였다.<sup>113)</sup>

소양교 입구까지 진출한 적의 SU-76 자주포(직사포)는 교량 위에 산적한 그들의 시체를 강으로 밀어붙이고 다리를 건너 소양강 남안의 일각을 점거하였다. 또한 가래모기로 도하한 적도 근무대대의 최후 저지사격을 뚫고 근화동까지 진출하였다.<sup>114)</sup> 12:00경 연대는 부득이 병력을 철수시켜 춘천시가지에서 적의 남하를

자연시키기로 하였다.<sup>115)</sup>

춘천의 일부를 이미 점령한 적의 공격이 계속되자 국군 제6사단장은 병력을 철수시켜 신진지로 이동, 차기 작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19연대와 1개 포대를 홍천으로 전환하기로 결심하였다. 사단으로부터 “부대를 철수하여 홍천 부근에 제2선으로서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라”는 명령<sup>116)</sup>을 받은 제19연대는 즉시 철수를 계획하였다.

제19연대장 민병권 중령은 투입장소 및 투입 선발대대의 결정, 적 SU-76 자주포(직사포) 격멸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작전주임 박주근 소령을 먼저 출발시키기로 하였다. 그에게 지형정찰임무를 부여한 연대장은 그 결과에 따라 병력을 유도하기로 결정하고 선발대대로는 제3대대를 지정하였다.<sup>1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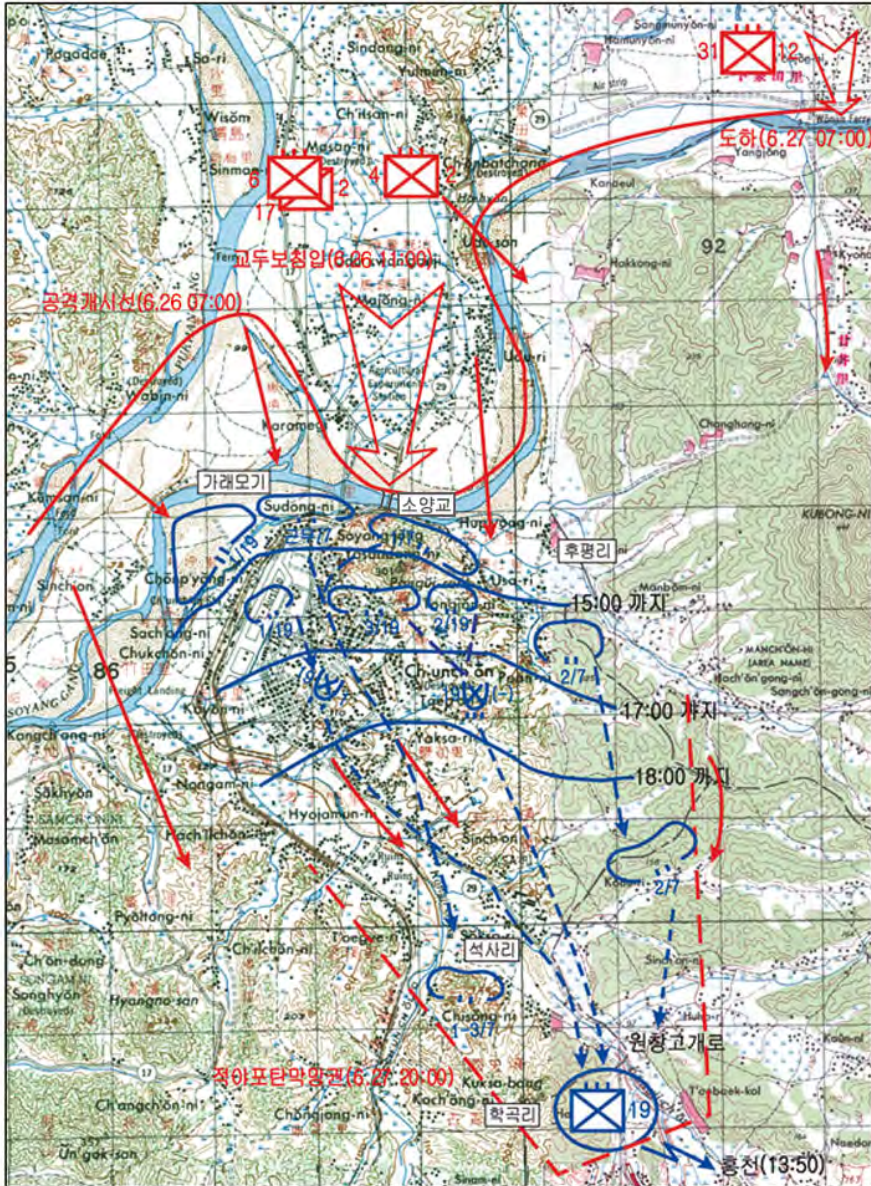
그럼에도 적 자주포를 격멸할 수 있는 묘안이 떠오르지 않자 연대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를 파악한 다음 결정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명령을 하달하였다.



- ① 연대는 현 임무를 제7연대에 인계하고 홍천으로 전진(轉進)하여 제2방어선을 구축하고자 한다.
- ② 연대의 행군서열은 다음과 같다.
  - ㉠ 제1제대 : 제3대대(집결 및 출발지 : 서부동)
  - ㉡ 제2제대 : 제2대대(집결 및 출발지 : 학곡리)
  - ㉢ 제3제대 : 제1대대(집결 및 출발지 : 학곡리)
  - ㉣ 지휘부 : 제1대대 후미에 위치

당시 제19연대 1대대와 2대대는 전날인 26일에 확보한 소양강 남안의 진지에서 제7연대의 좌일선을 형성하고 소양 제2교에서부터 근화동에 이르는 지역을 방어하였다. 그러나 명령에 따라 제19연대는 27일 10:00에 현 진지로부터 철수를 개시하였으며, 13:00에 춘천 남쪽 8km 지점에 위치한 학곡리에 집결하여 홍천을 향해 이동을 시작하였다.<sup>118)</sup>

<상황도 5-4> 제7연대 및 제19연대 최후저항선 전투



이처럼 제1대대와 제2대대는 소양강 남안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던 중 연대장 민병권 중령의 구두명령으로 학곡리의 춘천사범학교에 집결한 후 홍천으로 철수를 시작하였다. 이때 양 대대는 2개 중대를 제7연대에 배속하라는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각각 1개 중대(제1 및 제5중대)씩을 차출하였다. 양 대대는 병력차출 및 수습관계로 집결이 늦어 18:00에 차량으로 학곡리를 출발하여 홍천 서북쪽 3km인 덕고개에서 하차, 망령산에 이르기까지 선형을 이루어 춘천-홍천 간 5번 도로와 인제-홍천 간 44번 도로의 교차지점을 지키는 진용을 갖추었다.

제1대대와 제2대대의 철수를 최후까지 엄호하며 진지를 확보하던 제3대대는 10:00에 적과의 접촉을 단절하고 연대장 명령에 의해 봉의산 진지를 철수하여 13:00에 학곡리에 도착한 후 13:30에 홍천 방향으로 철수를 시작하였다.

한편 제19연대의 전환을 통보받은 제7연대장은 사단 지휘부의 작전지도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사단장에게 건의하여 승인을 받았다. 즉, 홍천으로 이동한 제19연대 1대대와 2대대의 담당구역인 소양 제2교로부터 근화동에 이르는 구역을 제19연대로부터 배속받은 2개 중대와 연대본부 행정요원 그리고 춘천 지역의 지원부대(공병 1개 중대와 소수의 병참, 병기근무대) 등을 통합하여 편성한 근무대대로 대체하여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시가전을 통해 적의 진격을 저지하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되었다. 따라서 연대장은 13:00에 연대관측소를 원창고개로 이동시켰다. 15:00에는 적의 탄막사격에 따라 확보하려던 제1시가지 방어선이 돌파되었고, 17:00에는 제2시가지 방어선마저 돌파됨으로써 연대는 제3시가지 방어선으로 철수를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19연대의 방어정면을 돌파한 적의 일부 병력이 춘천을 우회하여 연대의 우측방을 위협하며 남진을 계속하였다.<sup>119)</sup>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연대의 보급로가 차단될 것을 우려하여 일단 춘천을 포기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삼림이 울창하게 우거진 대룡산을 거점으로 삼아 적을 이곳으로 유인하여 섬멸한 다음 반격을 통해 춘천을 탈환한다는 계획을 사단장에게 건의하였다. 그러나 사단장은 연대의 좌우측방으로

각각 20km 이상이 노출되어 있는 점과 반격을 위해 병력을 보전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 계획의 승인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연대장은 축차 진지상의 지연전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 ① 연대는 현 진지로부터 철수하여 원창고개를 확보하고 적을 진전에서 포착·섬멸하려 한다.
- ② 제1대대는 486고지(대룡산 서쪽 1.5km)로 전진하여 우측방으로 침투하려는 적을 격파하고 명에 의하여 금병산을 점령하라.
- ③ 근무대대는 제3대대 제9중대를 통합 지휘하여 303고지를 방어하고 명에 의하여 원창고개 우측방(△341-△410)을 점령하라.
- ④ 제2대대는 제1 및 근무 양 대대의 철수를 엄호하고 철수완료와 동시에 158고지로 전진하고 명에 의하여 원창고개 좌측방(△602)을 점령하라.
- ⑤ 연대 수색중대는 대룡산 일대를 수색하고 연대의 우측방을 경계하라.
- ⑥ 배속 부대
  - ㉠ 제19연대 제5중대는 원창고개를 사전에 확보하고 연대의 철수를 엄호하라.
  - ㉡ 제19연대 제1중대는 국사봉-중일리를 점령하고 연대의 좌측방을 경계하라.
  - ㉢ 제16포병대대 제2포대는 석사리로 전환하여 주력의 철수간 화력으로 엄호하고 명에 의하여 제2대대를 직접 지원하라.
- ⑦ 철수개시 시간은 별도로 명한다.

이와 같은 작전명령에 의거 철수를 눈앞에 둔 연대는 모든 화력을 동원하여 적을 집중 강타하는 한편 그들이 확보하고 있던 거점으로 역습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적은 강력하게 대항하였고, 또한 증원 병력이 점진적으로 투입됨에 따라 돌파구가 확대되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전황은 악화되었고, 18:00에 마침내 춘천방어선이 돌파됨에 따라 연대장은 병력의 철수를 명령하였다.<sup>120)</sup> 이리하여 북한군 제2사단은 6월 27일 춘천을 점령하였고, 이어 자정 무렵에는 가평 인근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sup>121)</sup>



## (3) 춘천 외곽으로의 철수

소양강 남안의 방어진지를 점령한 후 전개된 공방전에서 북한군에게 상당한 타격을 안겨주었던 제7연대 1대대는 축차로 밀려드는 적으로부터 이탈하여 춘천 동쪽에 위치한 486고지를 점령하고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또한 혼성으로 편성된 근무대대도 303고지로 철수하여 춘천에서 홍천에 이르는 5번 도로의 좌측에서 방어하였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대룡산으로 이동하여 정상에 오르고 있던 연대수색대는 고지의 8부 능선에서 북한군과 조우하여 정상 선점(先占)을 위한 교전을 펼쳤으나, 그들에게 정상을 내어주고 341고지로 내려와 19:00에 연대 관측소 경계에 임하였다.

사단 작명에 의거 연대의 철수엄호 임무를 부여받은 제2대대는 제1대대와 근무대대의 철수가 완료되자, 제2포대로 하여금 적의 집결지로 예상되는 지점에 포 사격을 실시하도록 한 후 춘천 남쪽 2.5km의 158고지에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고 그들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이 무렵 제2대대에 머물며 연대의 춘천철수작전을 지휘하던 연대장은 대대가 저가진지를 점령하자 새로 연대관측소를 개설한 341고지로 이동함으로써 춘천은 18:00에 북한군 수중으로 넘어가게 되었다.<sup>12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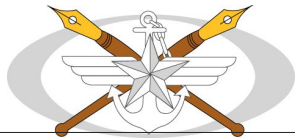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철수를 개시한 연대는 21:00에 새로운 진지로 이동하여 병력배치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이때 한 무리의 적이 아군의 진전으로 접근해와 육박전이 전개되었고, 이에 따라 연대지휘소는 196고지로 이동하였다. 또한 341고지에서 연대관측소 경계임무에 임하고 있던 연대수색대도 연대지휘소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이날 자정 무렵 북한군은 아군 진지에 가까이 접근하여 진지를 구축하였다.<sup>123)</sup>

## 주 (註)

- 74) 북한군 제2사단 사령부, 「전투명령 제001호」(1950. 6. 22).
- 75) 대대장인 인성관 소령은 6월 25일부로 보병학교에 교육을 받기 위해 출발함으로써 대대장직은 공백상태로 남아 있었고, 사실상 제10중대장인 하상도 대위가 대대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 7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전투사 : 38도선 초기전투(중동부전선 편)』, 1982, p. 47.
- 7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Ⅰ, 2001, pp. 158, 309.
- 78)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06.
- 79) 북한군 제2사단사령부, 「전투명령 제001호」(1950. 6. 22).
- 80) 춘천시와 화천군에 걸쳐 있는 높이 882m의 산으로, 서쪽으로는 오봉산(779m)과 능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산세가 그리 험하지 않으며, 정상에서는 소양호와 춘천시가 한 눈에 들어올 정도로 전망이 뛰어나다.
- 8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07.
- 82)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07.
- 83) 북한군 제2사단 4연대는 문정리-천전리-도지골을 점령하고 계속 공세를 확대하여 춘천을 포위 소멸하는 차후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다. 북한군 제2사단사령부, 「전투명령 제001호」(1950. 6. 22).
- 8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전투사 : 38도선 초기전투(중동부전선 편)』, 1982, p. 65.
- 85) 국방부, 『한국전쟁사 : 북괴의 남침과 서진』 제1권, 1977, pp. 276-277.
- 8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07. 제1대대가 예정된 방어진지인 164고지 일대에 배치된 시점은 각 중대별로 차이가 나고 있다. 당시 제1중대장이었던 이대용 중위(예비역 준장)는 배치 완료된 시점을 개전 당일 09:30~10:00로, 제3중대장이었던 김명익 중위는 07:00~08:00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대용(1982. 6. 29), 김명익(1982. 7. 8) 증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료실 소장.
- 8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09.
- 88)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09.
- 89)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09.
- 9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09.
- 9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08. 개전초기 국군 장병들은 북한군의 전차와 SU-76 자주포(직사포)를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전차로 인식하고 있었다. SU-76 자주포(직사포)는 소련제 자동포(북한군 명칭)로서 북한군 보병사단에 16대가 편제되어 있었다. 실제 전투에서는 북한군 보병연대에서 운용하였으며, 국군 기관총 진지, 참호 등을 직접 조준 사격하는 화기였다.
- 9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Ⅰ, 2001, p. 306.
- 93) 당시 제6사단 7연대장 임부택 중령 증언(1964. 10. 30, 전사편찬위원회 위원과 면담 시 증언);

- 「262군부대 훈장수여장」, NARA, RG242, SA 2009, Item. 145;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1권, 2001, p. 269; “1st Marine Division Photographic Supplement, Apr. 1951”, NARA, RG 127; 당시 7연대 대전차포 중대장 송광보 증언(2016. 6. 27, 군사편찬연구소); 당시 7연대 대전차포 중대장 송광보 증언(1차-2016. 7. 14, 2차-7. 27, 육군 군사연구소).
- 94)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08.
- 95) 당시 제6사단 7연대장 임부택 중령 증언(1977. 4. 7. 춘천지구전투 종합면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료실 소장.
- 96) 당시 제16야포대대 군수장교 김운한 소위 증언(1966. 5. 2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료실 소장.
- 9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08.
- 98)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08.
- 9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Ⅰ, 2001, pp. 160, 306.
- 100) 제16야전포병대대장이었던 김성 소령(예비역 준장)은 당시의 상황을 “보리밭은 누런데 적은 꺼떻게 파리 떼와 같아 구별이 용이하여 목측으로 사격하였다. 언제 조준이고 뭐고 할 시간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포탄은 VT탄이 없어 순발신관을 썼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당시 연대 작전주임이었던 이남호 소령도 “그들은 이미 사단전투훈련까지 마쳤다고 하는데, 보전포협동이 엉망이었다. 우리를 알보고 침입하였겠지만 애당초 그들은 지형지물을 도외시하였고, 전술 따위는 없었다. 우리가 1개 연대로 적의 1개 사단을 막은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으며,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전투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김성 소령(1986. 5. 24), 이남호 증언(1977. 4. 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료실 소장.
- 101) 당시 제6사단 16야포대대장 김성 소령 증언(1986. 5. 2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료실 소장.
- 102) 당시 제16야포대대 군수주임 김운한 소위 증언(1986. 5. 2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료실 소장.
- 103)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10.
- 10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Ⅰ, 2001, pp. 306~307.
- 10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12.
- 106) “Interrogation Report, Issue no. 71” (1951. 1. 20), MA, RG 7, GHQ, FEC; EUSAK, “Recommendation for Award - Heroism”(미 은성무공훈장 추천서), (1950. 9. 1); 「태극무공훈장 공적서」(1950. 11~1951. 10), 국가기록원 소장.
- 10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11.
- 108)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11.
- 109)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11.
- 110) 기존의 공간사에서는 이 병력을 인제-홍천 축선으로 침공을 개시한 북한군 제7사단(실체는 제12사단임)의 일부 병력(T-34전차 10대 포함)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춘천 점령이 지연되자 조바심이 난 제2군단장 김광협 소장이 자은리 부근까지 진출했던 제7사단의 일부를 전환하여 춘천 정면에 투입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 
- 1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Ⅰ, 2001, pp. 161, 164-165, 172, 309-310.
- 112)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13.
- 1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Ⅰ, 2001, pp. 172, 310.
- 114)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13.
- 115) 공산군측 문서에는 북한군 제2사단이 “6월 27일 포격을 실시한 후에 사단 예하부대들이 거두리 (춘천 동남쪽 6km)까지 진출한 제12사단 제31연대와 합동으로 공격을 재개하여 정오 무렵 춘천을 점령하였다”고 명기되어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Ⅰ, 2001, p. 307.
- 116) 제6보병사단 사령부, 「작전명령 제32호」(1950. 6. 27).
- 117) 제3대대를 선발대로 지정한 배경에는 최초 출동 당시와 마찬가지로 대대의 전투력을 높이 평가하였고, 또한 그동안에 단 1명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 118)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14.
- 119)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13.
- 12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13.
- 121) 러시아 국방부 편,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대전 : 오비기획, 2002), p. 33.
- 122)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 1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Ⅰ, 2001, p. 307; 소련군 총참모부, 「조선에서의 전투일보, 1950. 6. 25~1951. 12. 31」(1950. 6. 26~27). 그러나 피아간의 춘천점령 시점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측 자료인 국군 ‘제6사단 전투상보’는 18:00로 기록되어 있으나, 적측 자료인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에는 정오로 표기되어 있다.
- 123)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pp. 113-114.



## 춘천지구 전투(수정문)

발행일 2017년 9월 8일

발행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인쇄 국군인쇄창 M17070560



간첩, 방산스파이, 기밀누설, 테러범 등 우리나라의 숨은 위협들을 신고해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신고유형

간첩·방산스파이  
군사기밀 유출 방산스파이  
보안사고(사건) 관련자 제보

상금내역

간첩은 1년 · 최고 300만원  
테러 관련 신고 · 최고 100만원  
군 안 전 제보: 최고 50만원

신고방법

전화: 1337  
문자로 신고: www.dscc.mil.kr  
방위사업처 신고: 1337-1337

병영생활 고충, 군범죄·성폭력,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은 국방헬프콜 ☎ 1303(군·공중·일반·휴대전화 등 모든 전화로 통화 가능) [인터넷, 인터넷, 모바일 신고/상담시 검색창에서 "국방헬프콜" 입력]